

<2019 - 12 월호 소그룹 인도자용>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먼저 구해야 할 것

본문: 마태복음 6:24-34

찬송: 새 196 장 (통 174 장)

새 315 장 (통 512 장)

새 545 장 (통 344 장)

1. 여는 질문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선택은 포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가 포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없이 결정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선택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그 원인입니다. 그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본문 이해

예수님은 33절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산상 수훈 전체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고 우리 선택의 최우선이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24절).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절대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빵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려면 빵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답게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즉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

니다. 어떻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하고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몸에 옷을 걸치는 것이 사회관계의 기본인 세상에서 입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방점이 먹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에 찍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며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하기에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좋고 많은’ 그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면 돈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며 질문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게 살려는 사람에게 재물은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mammon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속으로

1.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24 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할 주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25 절)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 속으로

1.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암송구절 (마태복음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와의 나눔

아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으며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되는 것만큼 그 선택의 이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불쌍히 여기시니

본문: 마태복음 9:35-38

찬송: 새 219 장 (통 279 장)

새 220 장 (통 278 장)

새 221 장 (통 525 장)

1. 여는 질문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놓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은 관계이지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 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누가 좋은 이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본문 이해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짝이 없다는 말과 불쌍이라는 말을 함께 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쌍의 어원이 한자어로 짝이 없다는 “불쌍(不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불쌍은 짝이 없는 모습이 안스럽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남녀가 서로 짝을 찾지 못한 모습을 두고 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마음으로 함께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통할 수 있을 만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것처럼 불쌍한 일도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지역에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었다고 합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대책없이 사는 양에게 목자는 운명을 책임지는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던 겁니다. 때문에 고대 근동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의 쌍을 이룬 운명공동체로 보았습니다. 목자 잃은 양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까닭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의 쌍을 이루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짝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공감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만큼 서로를 향해 진실한 짝을 찾지 못한 불쌍한 무리가 많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적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뜻인 셈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이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일꾼 자체가 아니라 공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많은데 진정한 친구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6 절)

(다른 번역으로는 불쌍을 민망하다고 해놓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가 중심을 잃고 헤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무엇을 두고 하신 뜻일까요?(37 절)

(추수는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뿌린 씨앗은 천국 복음을 뜻하며, 추수는 전도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열매의 모습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눈에 띄는 외적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으로

1.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 추수할 일군은 누구이며, 이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암송구절 (마태복음 9:37b-38)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녀와의 나눔

친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걸림돌

본문: 마태복음 16:21-28

찬송: 새 250 장 (통 182 장)

새 276 장 (통 334 장)

새 600 장 (통 242 장)

1. 여는 질문

제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알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변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 본문 이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 (σκάνδαλον)’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넘어지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스캔달scandal”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지만(21절), 베드로는 이를 한사코 만류합니다.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에게 ‘스칸달론’, 곧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스승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서는 제자가 마치 걸림돌 같다고 비판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유대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옛 부흥과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줄 존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일로만 놓고 본다면 참담한 실패와 낙오의 길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구절의 어원도 바로 ‘스칸달론’ 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을 걸림돌 정도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서로가 걸림돌이 되는 형국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걸림돌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일에 걸림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희는 어떤 걸림돌로 살고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23 절)

(핵심은 21 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수난 예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24 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꾸짖으며 제자의 길에 대해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좇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삶 속으로

1.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송구절 (마태복음 16:24)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성탄의 진정한 의미

본문: 마태복음 2:1-12

찬송: 새 111 장 (통 111 장)

새 116 장 (통 116 장)

새 122 장 (통 122 장)

1. 여는 질문

성탄절에 받은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카드나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통해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본문 이해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성탄절 연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주현절과 관련해서 1월 6일을 동방박사의 방문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곧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동방박사의 여정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특별한 체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은 지금의 이란 땅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족히 3개월이란 긴 대장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언과 전통을 통해 메시아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왔던 유대인들은 무지할 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이란 소식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무관심만큼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무관심의 탓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나서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갔다는 부분은 어쩌면 영적 체험 이후 달라진 그들의 신앙 여정을 예들려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12절). 선물을 주어도 받지 못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성탄의 의미도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선물인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를 만난 이후에는 삶이 변화되는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3 절)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은 당시 식민지 지배세력인 로마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흥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5 절)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나오시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삶 속으로

1. 동방박사가 보여준 모범적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됩니까?

암송구절 (마태복음 2:6)

“또 유대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녀와의 나눔

아기 예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면 가장 기뻐하실까요?